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0:1-13(현대인의 성경)

1. 말씀

1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3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4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5 모세는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며
7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8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9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2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3"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바울이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부분은 어떤 면이고, 그것의 한계는 무엇이라 이야기 합니까?(2-3절)

→ _____

-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함'과 '모세의 율법적 요구'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5절)

→ _____

-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 곁에 있음"과 "입과 마음에 있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6-8절)

→ _____

- 바울은 "구원, 믿음, 고백"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나요?(9-10절)

→ _____

-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 믿음과 고백이 실제 삶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이 내 삶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보다 율법적 노력이나 '자기 의'에 의지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0:1-13(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바울은 동족을 향한 열정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순종하는 바른 지식의 부재로 인해, 메시야 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의는 말씀으로 이루어짐에도, 그들은 율법에 의한,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의와 구원을 이루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구원이 가까웠다고 선포한 바울은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함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며,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의 무익함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몰랐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왜곡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헤매고 있음에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을 돌아보지 않은 채 단지 열심과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교회가 무의식중에 그들만의 전통을 섬기는 나름의 방식에 집착하여 주님의 명령에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 관습의 틀을 깨지 못하면,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시각에 의존하거나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교회나, 사회나, 국가의 방향이 위태로워 질 수 있습니다. 사회가 어두울 때 빛이 되고, 균형을 잃어갈 때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면, 능력 없는 지식인의 양산이 얼마나 우려스러운 일인지 깨닫고 우리의 책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 기도